

고대불교 우주론

부처님 교설과 거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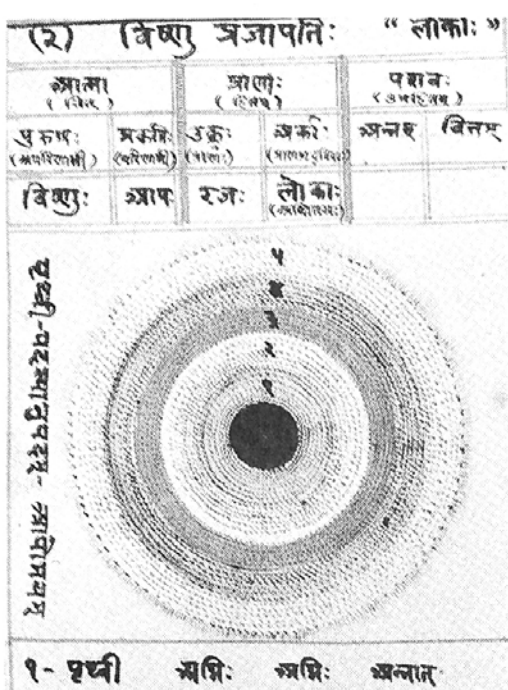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불교의 우주관

불교는 힌두교의 우주관을 받아들여 우주는 같은 구조로 된 무한히 많은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우주가가 유한하다고 긍정하는 것은 옳은 식견이 아니다. 우주가 무한하다고 보는 것 역시 옳지 못하다.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 또한 옳은 의견이 아니다. 이러한 삼중부정(三重否定)은 아마도 우리에게, 현세(現世)에서의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시급한 문제가 집중하도록 독려하면서 공허하고 무익한 논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대륙중 여기가 가장 크며 주민들의 얼굴은 사각형이며 채식주의자들이다. 주민들의 영혼은 사후에 나무에 깃든다. 대륙마다 두개의 작은 위성대륙이 있다. 인간이 사는 대륙의 왼쪽에는 라크사사(rakshasa)의 위성대륙이 있다. 그들은 인류의 적인 악마들인데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시체를 선동하고, 제사를 망치고, 착한 자를 괴롭히고, 인간을 잡아먹는다. 얼굴이 못생긴 악마도 있고, 아름다운 악마도 있다. 어떤 것들은 의녀나 외귀도 있다. 다리가 두개인 것, 세개인 것, 네개인 것도 있다. 고대 서사시에는 그들의 별명이 자주 등장한다. 살인자, 악한, 공물도적, 어둠의 거인,

에반스-웬츠(W. Y. Evans-Wentz)가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 서문에서 소개한 고대불교의 우주관에 의하면, 각 세계의 배꼽(중앙)에는 '메루(Meru)' 혹은 '수메루(Sumeru)'라고 불리는 산이 솟아 있다. 그 산은 머리부분을 잘라낸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다. 동쪽 사면(斜面)은 은으로, 남쪽 사면은 옥으로, 서쪽 사면은 루비로, 북쪽 사면은 금으로 되어 있다. 꼭대기에는 신(神)들의 도시와 선인(善人)들의 낙원이 있다. 맨 아래 층에는 지옥이 있다. 팔만사천 마일 높이의 메루산 위로 태양, 달, 성좌(聖座)가 돌고 있다. 메루



고대불교의 상상적 우주관은 부처님의 교설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것은 힌두교의 우주관에 대한 전통에서 불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시집은 베디시대의 전통에 따른 우주 변화의 일부 본으로 18세기 에즈리에 잉크와 그림물감으로 그린 것이다.

해탈위한 수행강조... 힌두사회 實事求是 개혁

산 주위에는 일곱개의 황금산이 차례로 메루산을 둘러싸고 있고, 각각의 황금산 사이에는 일곱개의 바다가 중심원(同心圓)을 그리며 메루산을 에워싸고 있다. 따라서 세계 지도는 일곱개의 원이 그려져 있는 화살 판넬 모양이 된다. 바다의 깊이와 산맥의 높이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마지막 산맥 외부에 위치한 바다가 인간이 접하는 바다이다. 이 바다는 네개의 대륙과 무수한 수의 섬이 있다. 동쪽대륙은 반달형의 모양인데 그곳 주민들 역시 반달형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성품이 차분하고 온화하다. 대륙의 색깔은 흰색이다. 남쪽 대륙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대륙과 인간 얼굴의 모양이 모두 배(梨)를 닮았다. 이곳엔 선과 악, 부(富)와 유복(裕福)이 있고 청색을 띠었다. 서쪽 대륙은 동글고 붉은 색이다. 주민들은 힘이 센데 소고기를 먹고 둥근 얼굴을 하고 있다. 북쪽 대륙은 사각형으로 녹색이다. 네

대륙은 육식동물, 육식동물, 육식동물, 육식동물, 육식동물 등으로 불린다. 일설에 의하면 라마교의 고승인 파드마-삼보하바가 8세기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파했다고 한다. 동쪽 대륙 주민의 수명은 2백50년, 남쪽 주민은 1백년, 서쪽 대륙 주민은 5백년, 북쪽 대륙 주민의 수명은 이천년이다. 구약성경에는 인간의 생명이 7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소련하우어는 인간의 자연수명을 1백년이라고 보았다. 소련하우어의 견해는 인도인의 생각과 일치한다. 병으로 죽는 것은 전생에서 전사하는 것 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사고(事故)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수평적인 묘사이다. 수직적으로 보면 세계는 세계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아래층은 감각의 지역이다. 이곳엔 신, 인간, 악마, 유령, 동물 그리고 지옥의 생물들이 산다. 이 층의 가장 아래 부분은 지옥인데 팔열지옥(八熱地獄)과 팔한지옥(八寒地獄)이 있

다. 지옥의 위에는 우리 인간들이 산다. 가운데 층은 형상의 지역이다. 제일 위층은 무형(無形)의 지역이다. 가운데 층과 위층에는 신들이 산고 있다. 신들은 수명이 무척 길지만 영생(永生)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신들은 메루산 꼭대기에서 살고, 다른 신들은 허공 위에 세워진 궁전에서 산다. 신들의 계급이 올라갈수록 쾌락은 비육체적인 것이다. 하급으로 내려갈수록 인간과 비슷하게 된다. 하급신의 사건의 행위는 인간과 유사하다.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사람의 행위도 키스, 애무, 미소 혹은 명상으로 바뀐다. 신의 세계에선 임신과 출산도 없다. 자식들은 이미 예닐곱살 먹은 상태로 신의 무릎 위로 급작스럽게 태어난다(유태인 상태) 창조되었다고 한다. 가운데 층의 신들은 감각적인 쾌락과는 상관이 없다. 그들의 음식은 환희이며 그들의 몸은 섬세한 물질로 되어 있다. 그들에게 시각과 청각은 있지만, 미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

은 없다. 최상층의 신들은 육체가 없고 순수한 명상적 무아경(無我境) 속에 산다. 그 명상은 2년, 4년, 6년, 8년 우주년(宇逐年)까지 지속된다. 각각의 세계는 물 위에 떠있고, 물은 바람 위에, 바람은 허공 위에 떠 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세계들은 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각 그룹들 사이에는 넓고 황량하며, 어두운 빈 공간이 있어 유행(流行)의 장소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위에서 묘사한 이러한 환상적인 우주관은 석존이 가르친 교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석존이 한결같이 강조했었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해탈로 이르게 하는 실천적 수행이다. 힌두교 전통 하의 인도에서 불교가 등장한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개혁을 의미했던 것이다.

번역: 김홍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를 수행일기... 삼배를 마치고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좌했다. 같이 간 세명의 동행자는 조심 조심 문안 인사말을 하였다. "오래 못 뵈었습니다. 그동안... 뉴욕에서 뵈은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하며 옆에 있는 나를 소개했다. "옛날 유명한 아나운서였어요..." 나는 꼭 짚었다. "지금은 예지원(禮智院)이라고 우리의 심성교육을 하고 있는 강영숙원장입니다..." 나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했다. 4~5분이 흘렀다. 아무말이 없었다. "이럴수가... 그래도 방문객인데... 정중하게 삼배를 올렸는데..." 같이 간 일행은 다른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다. 처음간 이 사람은 4~5분만 4~5시간만쯤 어색하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내가 뭐 잘못 된 것이 있어 노하였는가? 예비 지식없이 방만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저 이제 일어나지요... 다른 손님들도 배려드려야 할 꺼니까요" 하고 일어섰다 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절(寺)의 부처님이 말을 하던가... 생각해 봤다. 그저 웃고만 있는 표정이다. 그 표정의 의미를 어리석은 내가, 중생이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 기쁜 일에도 와서 절하고 괴로운 일에도 와서 절하고 좋은 일에도 절하고 나쁜 일에도 절하니 부처님인들 어찌 표정을 순간 순간 바꿀 수 있을까. "그래 그래 알고 있지..." 하는 미소의 표정이 아닐까. 말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나는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한데 하물며 열리는 일이라고 그저 내 놓는다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 그렇다고 우리가 절에 모신 부처님처럼 아무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생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 뜨면서부터 말

"말의 예절 지키며 실천 중시하자"

대행스님 '無言의 가르침' 삶의 좌표로 삼아... 때 큰스님은 누군가를 불렀다. 짧은 스님이 와 무릎꿇고 앉아 무엇인가 지시를 듣는 듯 싶었다. 얼마있으니 10권의 책자와 10개의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왔다. 역시 아무 말 없이 내 앞으로 밀어왔다. 이번에는 더 당황했다. 아무런 말도



말 할때 4~5분의 순간들이 무엇을 말 했을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보이지도 갖지도 만질수도 없는 심성을 가르친다니 얼마나 애로가 많았나. 얼마나 고달팠나. 예이 책을 보면 무엇인가 깨달았을 한구나 깨달았을 때 다시 만나자꾸나..." 말 한마디 주고 받지 않았어도 내마음을 꿰뚫어보신 스님. 대행(大行)스님이셨다. 그후 4~5년이 훌 흘렀다. 수행도 공부도 부족한 것을 항상 느끼면서도 찾아 뵈지 못한 세월들. 그러나 말 없이 간내주시고 말없이 받은 그 책. 그 속에 주옥같은 구절 하나하나 나의 마음에 불빛을 밝혀주어 괴롭고 외로운 예절의 길을 밝혀주며 깨달음과 용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한다. 1백8번, 3천번. 며칠 철야기도하며 울리는 절.

은 하는 것인데 그 말을 잘 가려서 살려가 되지 않게 말의 예절을 지키며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말없는 곳에서 진실성을 듣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나는 대행스님의 그 모습에서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온화한 표정을 느꼈고 묵묵한 가운데 내마음을 관찰하신 그 미소를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말없이 오고가는 하나의 경지가 아닌 가하는 생각을 한다. 평생 우리사회에서 떠도는 필요한 말보다 필요치 않은 말에 끌려 나를 흐트리고 살지 않는지 돌아보려는 습관도 바로 그 스님과의 인연이 준 신선함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나는 바르게 살기를 서원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삶의 자세를 남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맡은 소임이기도 하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말없이 수행하며, 인연 닿는 모든이와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 믿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삶에 있어 바른 정(正)자 하나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릴 큰 지혜이다. 나는 그 지혜의 말없는 실천가로 살고자 말없이 나를 건너다 보시던 그 푸근한 시선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Advertisement for '신비의 바라밀 속뜸기 보급 안내' (Mystery of Barimil Sotdeumgi Distribution Guide). It lists symptoms like hypertension, diabetes, and heart disease, and describes the benefits of the sotdeumgi devic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Barimil Sotdeumgi Research Institute.

Advertisement for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Causes and Remedies for Women's Diseases). It lists various symptoms and provides a list of 18 corresponding symptoms to identify.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institute.